제9강 범주의 정리

◆원칙의 분석론과 판단력
(1교시)
※학습목표: 원칙의 분석론의 서론부분에 대해 살피며 판단력에 대해서 알아본다.

▲원칙의 분석론과 판단력
「원칙들의 분석론은 판단력에 대한 규준이 될 것이다. 이 규준은 선천적 규칙을 위한 조건을 포함하는 오성개념 〔범주〕 들을 대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력에 가르친다. 이런 원인에 있어서 나는 오성의 진정한 원칙들을 주제로 삼으면서 본편에서는 판단력의 이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고, 그러함으로써 내가 하는 일이 보다 더 정밀하게 표시된다.」
-원칙들의 분석론은 판단력의 내용이다. 판단은 개념들을 종합하는 것이다. 이 때의 개념은 순수한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 경험에 맞닿은 개념도 포함된다.

▲판단력의 구조
「판단능력은 주어와 객어를 결합해서 판단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다. 여기의 주어는 감성에, 객어는 오성에,「이다」는 매개적 구상력 혹은 도식에 각각 해당한다.」
-판단력은 주어와 객어(술어)의 결합능력이다. 즉 주어와 술어의 결합능력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두 개념을 판단(종합)을 내리는 것은 오성이다. 이는 개사copula다.
-서구철학의 대전제는 실체와 성질이다. 실체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성질은 실체에 종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체성질의 존재론은 주어와 술어의 논리학(분법), 논리학의 구조와 한 덩어리를 이룬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이다. 또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도 이 구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참고사항
-19세기 중반부터 전혀 다른 방식의 논리학이 시작한다.

▲판단력의 역할과 성격
「오성 일반을 규칙의 능력이라고 설명한다면, 판단력은 그런 규칙 아래로 (현상을, 개별적인 경우들을) 포섭하는 능력이다. (중략) 판단력은 명백히 하나의 특이한 재능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가르쳐지지 않고 실지로 연마될 뿐이다.」
-판단력을 천부 소질로 보았다. 그러나 판단력도 경험에 의해서 좋아진다.

▲판단의 오류
「오성 일반을 규칙의 능력이라고 설명한다면, 판단력은 그런 규칙 아래로 (현상을, 개별적인 경우들을) 포섭하는 능력이다. (중략) 판단력은 명백히 하나의 특이한 재능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가르쳐지지 않고 실지로 연마될 뿐이다.」
-과학과 기술의 차이에서 많은 설명이 된다.
기술: 개별적인 경우를 많이 겪으면서 일반적인 것을 깨닫는다. 직접 해봄으로써 터득한다.
과학: 원리를 통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연역적으로 파악한다. 일반적인 가설을

www.artnstudy.com

세움으로써 그 가설을 검증한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의 산만함을 정리한다. 과학과 기술은 상호 영향을 준다.

◆오성의 순수개념의 도식성

www.artnstudy.com

(2교시)
※학습목표: 오성의 도식성과 시간의 관계를 살핀다.

▲선험적 도식
「한 개념 아래 대상을 포함할 즈음에 대상의 표상은 언제나 개념의 표상과 동종적이야 한다. (중략) 한쪽으로는 범주와, 다른 쪽에서는 현상과 동종적이야만 하고, 전자를 후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 삼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매개적 표상은 순수해야만 하고, 더욱이 일면적으로는 지성적이요 타면에서는 감성적이여만 한다. 이런 표상이 선험적 도식이다.」
-어떻게 순수오성의 차원이 감성의 차원과 일치할 수 있는가? →칸트는 이에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 능력(도식)이 가져야 할 기본적 성격은 오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도식을 매개로 개념과 구체적 감성이 만난다.
-도식(도상)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다. 즉 구상이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론적인 차원이 실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차원으로 가는 사이에 놓인 것이다.

▲내감의 형식 시간
「오성의 개념은 다양(잡다)일반의 순수한 종합적 통일을 포함한다. 내감의 다양의 형식적 조건, 따라서 표상들을 연결하는 형식적 조건인 시간은, 순수직관에 있어서의 선천적 다양을 포함한다. 선험적 시간의 규정은 그것에 보편적이고 선천적 규칙에 의거하는 한, (시간규정의 통일을 성립시키는) 범주와 동종이다.」
-외감의 형식은 공간이고, 내감의 형식은 시간이다.
-시간 규정이 엉망이라면 보편성은 없다. 달리 말하면 시간개념의 보편성이 있기에 역사성이 가능하다.

▲시간의 두 가지 측면
「그러나 시간규정은 타면 시간이 다양의 모든 경험적 표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현상과 동종이다.」
-어떤 경험이든 그것이 공허한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 경험이라 할 때 시간의 지평위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경험한다는 것은 겪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촉발되고 변하는 것)을 겪어야 시간이 있다. 경험을 경험이게 하는 것은 시간이 움직이고 있기에 가능하다. 또한 한편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적인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우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생생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이성의 틀이다. 오성의 틀보다는 이성의 틀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하겠다. -그래서 도식과 결정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시간이다.

*참고사항
-하이데거는 현존재와 존재 사이에 존재가 현존재에게 드러나는, 또한 현존재가 존재와 만나고 현존을 파악하게 되는 지평이 시간이다.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마르틴 하이데거, 이선일역, 한길사, 2001

www.artnstudy.com

▲경험주의적 자세

「**그러므로 현상에 대한 범주의 적용은 선험적 시간규정을 매개로 해서 가능하다. 선험적 시간규정은「오성의 개념」의 도식으로서 범주 속에 현상을 포섭함(현상에 적용함)을 매개하는 구실을 한다.**」

-칸트가 합리주의저인 사고를 구사하면서도 경험주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런 대목이 서양철학이 시간의 철학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범주의 도식 분류

(3교시)

www.artnstudy.com

※학습목표: 범주의 도식에 대한 분류를 살핀다.

▲분량-범주의 도식

「〔분량-범주의 도식〕 외감에 대한모드 분량의 순수형상은 공간이지만, 감관일반의 모든 대상의 순수형상은 시간이다. 그런데「오성의 개념」으로서의 「분량」의 순수도식은 수다. 수는 하나에다 하나를 (동족적인 단위들을)연속해서 보태는 것을 포괄하는 표상이다. 즉 「수」란 동종적인 직관 일반의 다양의 종합적 통일임에 틀림없다. 이런 통일은 직관의 각지에 있어서 시간 자체를 내가 생산해 내는 데에 기인한다.」

-도식은 그림인 동시에 일반적 그림이라 했다. 그리고 그것이 감성적임과 동시에 오성적이란 것은 시간의 형식을 띠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는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는 방식이다. 다한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 양을 경험하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양이란 범주가 시간 속에 경험의 방식에 적용되는 방식은 수다.

-그래서 수는 양이란 측면에서 오성적인 동시에 감성적이고, 시간 개념이 깃들어 있다.

*참고사항

-분량-범주론의 비판

: ①도형은 왜 안 되는가? →고중세의 도형개념은 즉자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근대적 도형개념은 그려지는 것이다.

②수가 반드시 시간 속에서 형성되는가? (수의 본질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가?)

▲성질-범주의 도식

「〔성질-범주의 도식〕 오성의 순수한 개념에 있어서 실재성은 감각일반에 대응하는 것이며, 개념자체가 (시간에 있어서) 실재하는 것임을 지지한다. 부정성은〔비실재성〕은 그것의 개념이 (시간에 있어서) 비존재임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양자의 대립은 동일한 시간이 충실된 것이냐 또는 공허한 것이냐 하는 구별에서 생긴다. 시간은 직관의 형식, 따라서 현상으로서의 대상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상으로서의 대상에 있어서 감각에 대응하는 것은 모든 대상의 선험적 질료 즉 물자체(사물성, 실재성)이다.」

-실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존한다는 것이 내 감성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재성을 감각일반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없는 것은 내 감각으로 확인 되지 않는다.

-시간이 채워지느냐 비느냐는 것은 어떤 것이 내 앞에 존재할 때, 내가 바라보는 그 시간이 그것에 대한 지각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시간이 빈다는 것은 내용물이 없으니 시간이 비워진다는 것이다.

▲감각과 도

「그런데 감각은 각기 도(강도, degree)나 양을 가지며 이것에 의해서 감각은 동일한 시간을, 즉 한 대상의 동일한 표상에 관한 내감을, 감각이 없음-영 즉 부정-에 이르러 끝날 때까지 다소간에 메꿀 수 있다.」

-감각은 내 앞에 성질이 적용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순수오성의 성질에 관련되면서 실제 내 앞의 이미지와 관련이 되는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다. 내 오성 속의 질이란 범주와 동족적이고 실제 내가 지각하는 질들에 동족적인 것→강도다.

www.artnstudy.com

▲강도의 변화

「그러므로, 실재성에서 부정성에 이르는 관계, 연관 혹은 오히려 이동이 있다. 이 이동은 모든 실재성을 양으로서 나타낸다. 그리고 그 무엇이 시간을 메꾸는 한, 그 무어의 양인 실재성의 도식은 바로 시간에 있어서의 그 실재성의 연속이요, 동형적인 생산이다. 이것은 우리가 식에 있어서 일정한 도를 가지는 감각에서 그것의 소멸점에까지 내려가거나, 도의 부정에서 감각의 어느 양에까지 점차 올라가거나 하기 때문이다.」

-강동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미지들의 변화를 감지하게 해주는 도식이다.

-시간이 채워지고 비워지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없어지며 생겨지는 연속적 차원을 말할 수 있겠다.

▲관계-범주의 도식

「〔관계-범주의 도식〕 실체성의 도식은 실재적인 것의 시간에 있어서의-모든 다른 것은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바-지속성이다. 즉 경험적 시간규정 일반의 기체로서의 실재적인 것에 관한 표상이다. (시간 자신은 흘러가지 않고 시간에 있어서 가변적인 것의 존재가 흘러간다. 그러므로, 그 자신 불변적이고 지속적인 시간에 현상의 분야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이 현존중의 불변자, 즉 실체다. 그리고 이런 실체에 관계해서만 현상의 계기와 동시 존재가 시간에 따라서 규정될 수 있다.) 」

-원인과 결과라는 순수오성의 범주와 실제 내가 경험한 내용에 관련된다.

-인과와 직접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어주는 것은 계기(연이어 일어남)이다.

▲상호성의 도식

「상호성(상호작용)의 도식 혹은 <u>우유성(우발성, 부딪침)</u>에 관한「실체들 서로의 인과성」의 도식은 한 실체의 규정과 딴 실체의 규정이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공존한다는 것이다.」

-실체의 성질 범주의 도식은 지속이고, 인과의 도식은 계기고, 상호작용의 도식은 공존이다.

▲양상-범주의 도식

「〔양상-범주의 도식〕 가능성의 도식은 서로 다른 표상들의 종합을 시간 일반의 조건들과 합치시킴이다. (예컨대 서로 대립한 것은 한 사물에 있어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나, 전후적으로만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성의 도식은 한 사물의 표상을 〔이 시간 중에서건 저 시간 중에서건 간에〕 어느 <u>한 시간 중에서 규정한다는 뜻이다</u>. 현실성의 도식은 일정한 시간 중에 현존이다. 필연성의 도식은 모든 시간에 있어서의 한 대상의 현존이다.」

-양상범주는 가능성, 현실성, 필연성이다.

-가능성→sometime

현실성→realtime

필연성→anytime

www.artnstudy.com